

2008년 07월 02일 (수) 11:53 [뉴스시스](#)

광양 미술계 자정 목소리 높아

【광양=뉴스시스】

전남 광양시 미술인들이 미술계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일 오전 광양예술발전시민연대는 [광양시청](#) 열린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양미술협회가 10여년 동안 독선과 투명하지 못한 재정집행을 해왔다"며 "화합하는 민주적인 협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임 지부장이 자신에 뜻과 맞지 않은 회원을 탈퇴시키거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배격해 지역예술인들을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밖에 없도록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시회 등 행사때 전남도 [문예진흥기금](#)과 광양시 지원기금, [광양제철소](#) 찬조금 등에 대한 지출내역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2개월반 동안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전 지부장과 광양예총에 타협과 조율을 요청했지만 요구가 무시돼 기자회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서류상 문제는 없지만 광양지역 일부 예술인들이 폐쇄적 협회 운영에 관해 집행부를 불신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한 것 같다"며 "화합이 우선인데도 화합엔 서로 미진했으며 정회원 20여명에 준회원 80여명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미술협회](#) 광양시지부는 지난 18년 동안 김모씨(55)가 지부장을 역임해오다 지난 6월 사퇴했으며, 부지부장 조모씨 체제로 21일 임시총회를 열어 지부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김석훈기자 kim@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스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